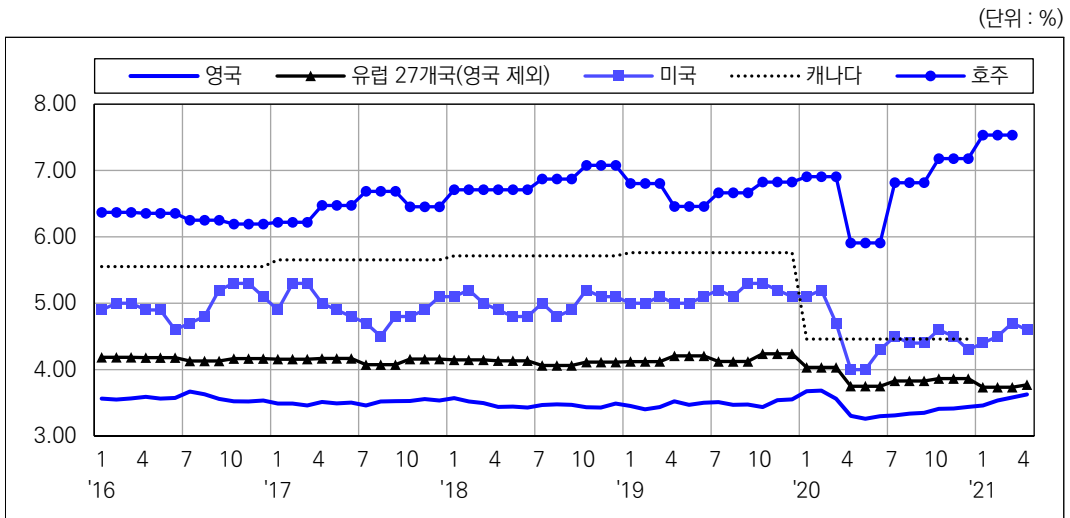


연령대별 부업참가자의 특징 및 주업과의 관계

- 호주 및 영국, 미국에서는 노동통계를 발표할 때 부업참가자에 대한 통계를 함께 발표하고 있는데, 부업참가율은 호주, 캐나다, 미국, 유럽 27개국(영국 제외), 영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유럽 27개국 중에서는 노르웨이(2020년 4분기 9.59%), 스웨덴(9.17%), 덴마크(8.45%), 네덜란드(8.18%), 스위스(8.13%) 등 인구가 적은 국가의 부업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부업참가율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호주, 영국은 코로나 19 확산 이전 수준의 부업참가율로 되돌아가고 있음.

[그림 1] 주요 국가별 부업참가율 추이



주: 미국의 경우 부업참가율을 직접 발표하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는 부업참가자(multiple job holder, second job)를 발표하고 있어 같은 시기의 취업자로 나누어 부업참가율을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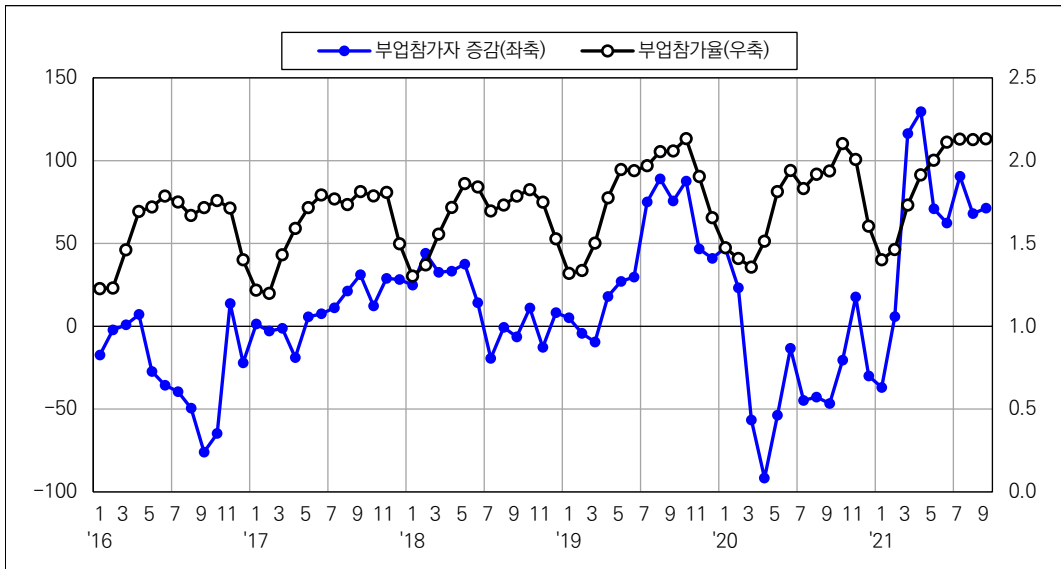
자료: <https://www.ons.gov.uk/>, 영국 통계청
<https://www.statcan.gc.ca/>, 캐나다 연방통계청
<https://www.bls.gov/>, 미국 노동통계국
<https://www.abs.gov.au/>, 호주 통계청
<https://ec.europa.eu/eurostat/>,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에서 파악되는 부업참가자¹⁾는 2021년 9월 기준 57만 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전년동월대비 부업참가자는 7.1만 명 증가하였으며, 부업참가율은 2.1%로 2021년 6월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부업참가율은 2018년까지 1.6~1.7% 수준이었고, 2019년 들어 2%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의 부업참가율보다 낮은 수준임.
- 최근의 부업참가자 증가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업참가자가 감소한 것에 대한 기저영향 때문이며, 부업참가율은 변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2] 부업참가자 증감 및 부업참가율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주업의 종사업종별로 부업참가율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종사자의 부업참가율은 2021년 4~9월(2~3분기) 7.8%²⁾ 수준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고령층(60세 이상) 농림어업 취업자의 8.8%가 부업에 참가하고 있음.

- 1) 조사과정에서 취업자 가운데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주된 일(주업)은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시간이 가장 많은 일을 의미하며, 자영업의 형태로 두 가지 이상 일한 경우는 부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2) 농림어업조사(2019)에서는 전체 농가의 42%가 겸업으로 농업에 참여하고 있음. 농림어업조사에서는 농업 종사자는 축산업 및 임업, 어업을 비롯하여 숙박음식점 등 자영업 형태로 두 가지 이상 일하면서 겸업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부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농림어업의 경우, 본인 소유 농가에서 일하고(자영업), 나머지 시간에는 같은 마을 사람의 농가에서 일하는(임금근로) 농가가 많기 때문에 부업참가율이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에 따라 농한기(12~2월)를 구분하여 휴식을 가지거나 평소의 부업 활동이 농한기에는 주업활동으로 전환되면서 부업참가율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음.
- 2021년 4~9월 평균 15~39세의 부업참가율은 1.3%, 40~50대는 1.7%(40대 1.4%, 50대 2.1%), 60세 이상은 3.8%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부업참가율은 높아지고 있음.
- 60세 미만 연령층의 부업참가율은 1~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0, 50대의 부업참가율이 2016년 1.9%에서 최근 1.7%로 감소하고 있고, 15~39세 연령대의 부업참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0.8%에서 1.3%로 증가하고 있음.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부업참가율은 2017년까지 4~7% 수준이었으나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의 재정 지원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농업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업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임.
 - 농림어업 취업자를 제외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부업참가율은 2~3% 내외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점차 초고령화가 되어가는 사회에서 노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가 및 일자리 사업의 확대는 부업참가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 1〉 연령대 및 주업의 종사업종별 부업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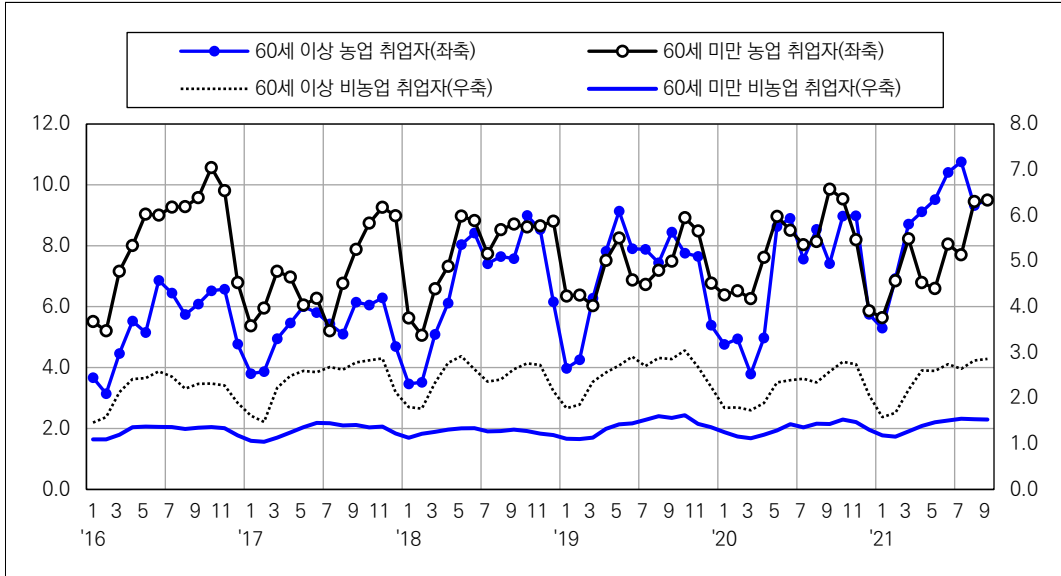
(단위: %)

	15~39세		40~59세		60세 이상		전체 연령	
	2016년 4~9월	2021년 4~9월	2016년 4~9월	2021년 4~9월	2016년 4~9월	2021년 4~9월	2016년 4~9월	2021년 4~9월
전 업종	0.8	1.3	1.9	1.7	3.0	3.8	1.7	2.0
농림어업	2.2	2.8	6.7	6.0	5.6	8.8	5.7	7.8
제조업, 건설업	0.5	0.7	1.1	1.0	1.7	1.6	0.9	1.0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	0.8	1.3	1.4	1.6	1.6	1.7	1.2	1.5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서비스업, 사업시설서비스업	0.8	1.2	1.9	1.6	2.0	2.3	1.4	1.5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9	1.7	2.7	2.2	4.1	4.2	2.1	2.5

주: 부업참가율이 증가하기 전의 2016년 2~3분기와 비교를 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3] 연령대 및 농림어업 종사여부별 부업참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60세 미만 연령대에서 부업참가율은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표 2>에서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은 2019년 주업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부업참가율과 부업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음.

- 비교적 전문직, 사무직의 비중이 높은 전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상 J, K, L, M)은 근로시간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부업참가율과 부업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2019년 10월)를 활용하여 주업의 업종별(중분류) 시간당 임금과 부업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업종별 임금수준과 부업참가율은 반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남(그림 4의 검은 점선).

- 제조업(그림 4의 금색, C.x)의 경우 전체 업종의 추세보다 낮은 임금과 부업참가율이 나타나고 있음. 초과근로시간이 많고 교대근무가 빈번한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낮은 임금을 보전하고자 부업에 참가하고 싶으나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됨.
- 전문서비스업(그림 4의 회색, J/K/L/M.x)의 경우 전체 업종의 추세보다 높은 임금과 높은 부업참가율이 나타나고 있음. 상대적으로 정규시간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고, 이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함께 다양한 경험(이직 및 창업, 노후준비)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부업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됨.

KLI

〈표 2〉 업종별 취업자의 부업여부별 근로시간 및 부업참가율 추이(60세 미만)

(단위 : 시간/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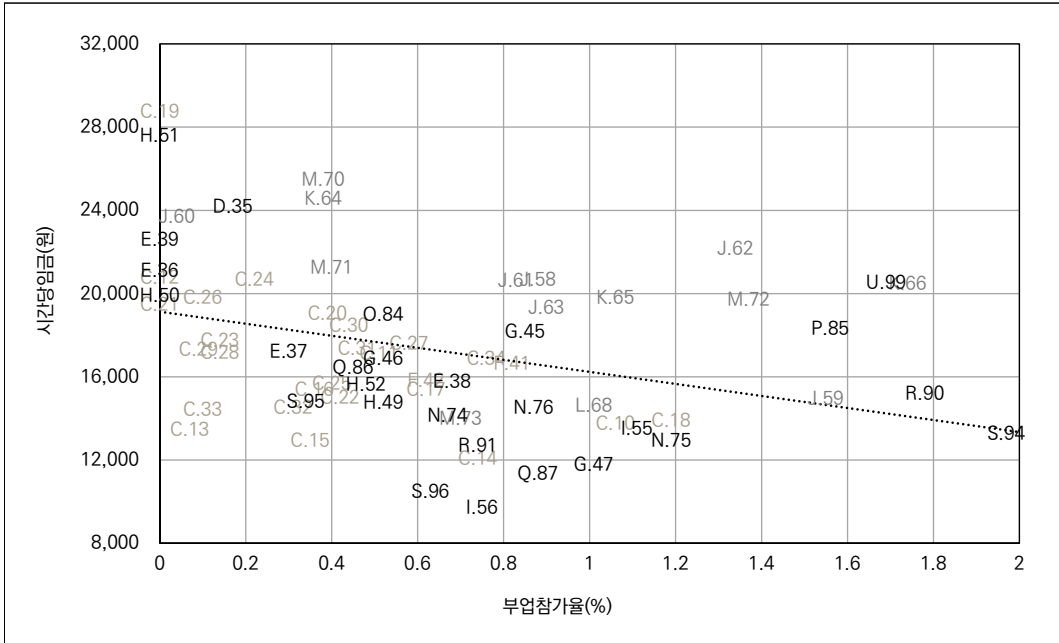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부업참가자		전체 주업 근로시간	부업 참가율	부업참가자		전체 주업 근로시간	부업 참가율
	주업 근로시간	부업 근로시간			주업 근로시간	부업 근로시간		
2016년 4~9월	38.8	13.6	46.7	1.18	38.9	13.5	41.6	1.35
2017년 4~9월	40.3	13.0	46.4	1.36	39.2	13.0	42.2	1.53
2018년 4~9월	39.3	13.0	45.3	1.07	37.9	13.2	40.1	1.31
2019년 4~9월	36.3	13.7	43.9	1.45	37.3	12.5	40.2	1.50
2020년 4~9월	36.1	14.4	41.4	1.35	36.0	11.0	39.0	1.30
2021년 4~9월	34.8	13.7	41.8	1.47	35.1	10.9	39.5	1.40

주 : 1) 왼쪽은 표준산업분류(10차)에서 도소매업(G), 운수창고업(H), 음식숙박업(I)을 의미함.

2) 오른쪽은 정보통신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M)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4〉 주업의 업종별 시간당 임금과 부업참가율 비교(2019년 10월)



주 : 1) 금색으로 표기된 점은 제조, 건설업(C, F), 회색으로 표기된 점은 전문서비스업(J, K, L, M), 검은색으로 표기된 점은 나머지 업종을 의미함.

2)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전(2019. 10)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농업은 그림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임용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